

미·멕시코 나프타 개정 추진...기아차 '긴장'

생산비 상승 등 대미수출 차질 불가피...향후 대응책 강구 멕시코 제2공장 건설·연구개발센터 설립도 물 건너 갈듯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멕시코에 진출한 기아차가 시름에 빠졌다.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이 높아진 데다 고임금 근로자가 생산하는 부품 비중 등이 높아지면서 생산비용 상승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기아차 멕시코 법인에 따르면 법인 측은 한국 본사와 함께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 개정 잠정 합의안을 정밀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6년 9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

캐리야시에 생산공장을 준공한 기아차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연간 29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중 6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는 멕시코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중남미 등 세계 7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잠정 합의한 나프타 자동차 부문 개정안이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많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미 수출 차량의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이나 부품 조달 측면에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아직 최종 서명에 앞서 세부 실무 협상

이 남아있지만 큰 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기아차가 장기적으로 검토한 멕시코 제2공장 건설이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분석된다.

나프타 자동차 부문 개정 초안을 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는 근로자가 생산해야 하는 부품 비중도 40~45%로 규정했다. 두 합의안 모두 미국이 자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와 부품사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히 주장해온 사안이다.

역내 생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율도 기존의 30%대에서 70%로 높아졌다. 기아차는 현재 현대제철로부터 70%, 멕

시코 현지업체로부터 30%를 각각 공급받고 있다. 앞으로 철강-알루미늄 공급선을 현지 업체로 변경해도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아차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이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기아차는 내부적으로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충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는 근로자가 생산하는 부품 비중이 낮아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본사 차원에서 고임금 근로자 생산 비중 규정을 충족하려고 미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도 동반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 등이 생산하는 고가의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8> 환관 어조은

어조은(魚朝恩, 722-770)은 당 숙종, 대종 때의 실세 환관으로 권세를 휘둘렀다. 재상 원재의 사주로 770년 대종의 명으로 처형되었다.

사천성 로주 출신으로 일찍이 궁에 들어왔다. 현종의 태자 이행을 섬기게 되었는데 아부에 능하고 눈치가 빨라 측근이 되었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 현종이 장안을 떠나 사천으로 피난가고 756년 이행이 숙종으로 즉위했다. 숙종이 광자의, 이광필 등 장군들을 믿지 못하자 군영에 파견된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다. 757년 장안이 회복되자 내시성(內侍省)의 책임을 맡았으며 장군 칭호를 받았다. 758년 그를 관군용선위처치사로 삼으니 관군용(觀軍容)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작전능력이 없어 싸움에 패하면 남에게

장군, 겸신책군사, 내시감 등 여러 직책을 갖고 금군을 다스리니 권세가 비할 바가 없었다. 정원진이 숙청된 후 황상이 항상 그와 더불어 근대와 나라 일을 논의했다. 종신을 입신시키고 조종하니 재상 원재조차도 감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의 측근들이 권세를 믿고 남의 토지를 빼앗고 사람들을 붙잡아 매질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 그는 매번 주문을 올리면 반드시 황제의 운허를 받기를 기대하였고 정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번번이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천하의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황상이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양자 어령휘가 어렸지만 내급사로 삼아서 6-7급 관원이 임는 녹색 옷을 입었다. 같이 일한 사람들과 다투면 부친에게 늘 고자질하였다. 그는 황제에게 "신의 아들은 관직이 비천하여 같은 또

눈치·아부로 숙종 최측근 자리 올라

책임을 전가하곤 했다. 광자의도 군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다. 759년 광자의를 장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광필이 삭방절도사·병마원수를 맡도록 계획을 꾸렸다. 762년 조정은 웅왕 이광을 천하병마원수로 삼아 반군 지도자 사조의를 치도록 하였는데 그의 반대로 광자의를 부사로 삼지 못했다. 안사의 난이 평정된 후 풍익군공에 봉해졌다.

763년 토번이 장안을 침략했다. 숙종의 뒤를 이은 대종은 하남성 섬주에 군사를 주둔시킨 어조은에게 피난을 갔다. 광자의 군이 장안을 수복하자 대종을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와 섬주로 돌아가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관군용선위처치사로 금군을 총괄하여 권력과 황제의 총애가 비할 바가 없었다.

관군용선위처치사로 금군을 총괄하여 권력과 황제의 총애가 비할 바가 없었다. 신책군을 거느려 병권을 좌지우지했다. 오만방자하게 설치면서 조정대사를 제멋대로 했고 인사를 전횡했다. 황제조차도 눈치를 볼 지경이었다. 767년에는 자신에게 하사한 정원을 장경사로 만들어 장경태후의 명복을 빌겠다고 자랑했다. 장안의 재목만으로는 모자라 장안 주변의 재목 등을 써 비용을 만여를 넘었다고 한다.

그는 관군용선위처치사, 좌감문위대

래의 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니 청컨대 그에게 3품 이상의 고관이 임는 자의(紫衣)를 내려 주십시오" 황상이 답을 하기도 전에 어령휘가 그것을 입고 감사의 절을 하였다. 황상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기를 "어린애가 자의를 입으니 크게 마음에 맞는 모양이구나" 이에 더욱 불쾌한 마음이 깊어졌다.

재상 원재가 황상의 뜻을 헤아려 그를 없애버릴 것을 청하였다. 어조은은 매번 궁궐에 들어오면 경호관 주호로 하여금 1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호위토록 하였다. 또한 측근인 섬주절도사 황보은이 밖에서 병사를 거느리도록 하였다. 원재는 주호와 황보은을 황제 편으로 만들었다. 한식일에 황상이 궁중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끝나고 어조은이 영채로 돌아가려 하자 황상이 그를 남아있게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나무랐다. 그가 매우 오만하게 스스로를 변명하자 주호가 그를 사로잡아 목을 매 죽였다.

황상이 "어조은이 조서를 받고 이내 스스로 목을 댔다"고 발표했다. 시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6백만 전을 내어 장사지내도록 하였다. 이어서 어조은의 주정했다. 장안의 재목만으로는 모자라 장안 주변의 재목 등을 써 비용이 만여를 넘었다고 한다. 그는 관군용선위처치사, 좌감문위대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국립박물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아프리카에 '러브콜' ... 운명공동체 선언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참석 연설 53개국 정상들과 연쇄접촉 '경제지원' 협력 약속도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을 배이징에 불러 모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일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다자주의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국중앙(CC)방송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열리는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중국과 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구축과 경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올해 중국이 주최하는 외교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시 주석은 운명공동체 제안과 더불어 아

프리카 각국 정상과의 연쇄 접촉에서 '경제 지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면서 미국 등 서구의 영향권에 놓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길 계획이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아프리카가 같은 개도국이며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협력만이 상생의 길이라면서 중국과 아프리카가 운명공동체로 외교, 경제, 문화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日 자민당 총재 선거 32% "아베 지지한다" 개헌안엔 38%가 "반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총재에 적합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많이 꼽혔다는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중 누가 차기 총재에 어울리는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가 32%, 이시바 전 간사장이 29%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없다'는 응답은 28%였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한정하면 아베 총리 쪽이 65%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뽑은 비율(18%)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방침에 대해선 반대(38%)가 찬성(20%)보다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3%였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로, 지난 7월 조사와 같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1%로, 3%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